



# 빅매치 해결사 박·지·성 맨유 4강 이끌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에서 뛰는 박지성(30)이 13일(한국시간)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1-1로 맞선 후반 32분 역전골을 넣은 뒤,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 프로야구 30년 타이거즈 30년 (4) 타이거즈 첫 게임

원년 해태 타이거즈의 선수 수는 몇 명이었을까?  
2011년 현재 KIA 타이거즈의 등록선수 수는 투수 28명, 야수 33명의 합인 61명이다. 8개 구단이 대부분 60여명 선으로 선수단을 구성한다.  
민기지 않겠지만 원년의 해태 타이거즈는 투수 6명, 야수 14명의 합인 20명으로 프로야구팀을 창단하여 리그에 참여했다. 투수 6명 중에는 김성환이 포함되어 있으니 김성환이 야수로 이동하면 투수는 고작 5명인 것이다. 코치는 조창수와 유남호 단 2명이었다.  
해태 타이거즈의 원년 멤버는 투수 강민식 김성한 김용남 방수원 신태중 이상윤, 야수는 김경훈 김봉연 김용만 김우근 김일권 김종모 김종운 김준환 박전섭 임정범 조총열 차영화 최영조 홍순만 등이다. 해태의 김씨 일가는 원년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듬해 제일동포 '스마일 포수' 김무중의 입단과 롯데에서 김일환까지 이적해와 김씨 일가가 10년 세도를 누리게 된 것이다.

## 투수 6·야수 14명으로 출발 부산서 롯데에 2대 14 참패

대망의 해태 타이거즈의 첫 공식경기는 1982년 3월28일 일요일 부산(구덕)구장에서 대 롯데전으로 시작되었다. 방수원과 노상수의 선발 맞대결로 시작된 역사적인 첫 판은 해태 타이거즈가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인 1회에 7실점하는 등 난타를 당하며 롯데 자이언츠에 2-14로 참패하면서 그 서막을 해운대 앞바다에 고했다.

당시 해태 타이거즈의 선발 라인업은 차영화(4) 조총열(6) 김성한(5) 김봉연(3) 김준환(DH) 김종운(9) 김우근(8) 박전섭(2) 김종모(7)이었고, 부산 갈매기 1만 1428명이 지켜보았다. 김성한은 3루수로 출장해 3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고, 6회부터 구원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3이닝동안 무안타 무실점 호투로 양수점장을 했는데 이를 잘했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이렇듯 초라하게 시작했던 타이거즈가 'V10'을 이룩하며 명문구단으로 거듭 날 수 있었던 것은 '타이거즈 정신'과 열화와 같은 팬들의 성원이 응집된 결과일 것이다. 필자는 원년부터 야구기록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그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해태 타이거즈의 발전과 팬들의 상식을 고양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해태 타이거즈는 열악한 토양 위에서도 전후기 통산 4위를 차지했고, 김봉연이 홈런왕(22개), 김성한이 타점왕(69타점), 김일권이 도루왕(53개)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차영화는 2루수, 김준환은 유망수 부문에서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해태 타이거즈의 우승은 요원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 광주FC·전북, 유니폼 착용편 무료 입장

프로축구 광주 FC와 전북 현대가 스포츠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유니폼 착용시 무료 입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와의 원정경기에서 광주를 상징하는 노란색의 유니폼이나 상의를 착용할 경우 서포터즈석에서 무료로 축구를 관람할 수 있다.  
전북 서포터즈들도 녹색 유니폼이나 같은 색 상의를 입고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빛고를 광주 FC서포터즈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6일 전북 원정길에 오를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챔스 8강 첼시 2차전... '부상투혼' 발휘 환상 결승골 '막고 넣고' 공수활약 강팀 킬러로... 트레블 달성 관심

박지성(30·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13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홈 경기에서 1-1로 맞선 후반 32분 역전 결승골을 꽂아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첼시의 '드록신' 디디에 드로그바에게 동점골을 내줘 하마터면 4강행이 무산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지만, 박지성은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썩기포를 터트리 첼시의 추격을 잠재웠다.

경기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박지성에겐 이번 첼시와의 8강 맞대결은 특히 의미가 컸다. 2008년 맨유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할 당시 박지성은 AS로마와의 8강전, FC 바르셀로나와의 4강전에서 소극 같은 역할을 해냈지만, 첼시와 치른 결승전에선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기 때문이다. 영국 언론은 이번에도 첼시와의 2차전을 앞두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 대신 루이스 나니를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박지성에 대한 퍼거슨 감독의 믿음은 생각보다 굳건했다. 퍼거슨 감독은 나니와 박지성을 나란히

기용했고 박지성은 감독의 신뢰에 결승골로 화답했다.

전반 21분 첼시 수비수와 볼을 다루다 왼쪽 눈가가 찢어졌지만, 박지성은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그라운드 전역을 누볐다. 후반 초반 첼시의 반격이 거세지자 박지성은 한 발짝 더 움직이는 헌신적인 자세로 상대 공격의 맥을 끊었다.

후반 12분에 플로랑 말루다가 속공을 전개하자 40m가량을 재빨리 거슬러 올라가 기습 공격을 차단했고, 후반 20분 디디에 드로그바가 위협적인 크로스로 골망을 노릴 때에도 어김없이 골문 앞으로 성큼 달려와 수비에 가담했다.

청소부 역할에 충실했던 박지성은 결국 결승골마저 작렬하며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박지성은 이날 터트린 시즌 7호골(4도움)로 2005년 맨유 입단 후 최고의 성적이다.

'큰 경기'에 강한 박지성이 맨유의 트레블(정규리그·FA컵·챔스리그 우승)을 이끌고 그간 간간히 제기됐던 이적설마저 잠재울 수 있을지 축구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 맨유, 인터밀란·샬케04 승자와 결승행 다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명문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강호 FC바르셀로나가 2010-2011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 오르면서 4강 대결 윤곽이 거의 그려졌다.

맨유는 13일(이하 한국시간) 8강 2차전에서 프리미어리그 라이벌인 첼시를 2-1로 꺾어 1차전 1-0 승리에 이어 1, 2차전 합계 3-1로 4강에 선착했다. 이로써 맨유는 지난해 챔피언인 인터 밀란(이탈리아)과 샬케04(독일) 경기의 승자와 결승 진출을 다룬다. 샬케04는 앞서 8강 1차전 원정에서 인터 밀란을 5-2로 완파했기 때문에 맨유와 4강 대결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2008-2009시즌 우승팀인 바르셀로나도 8강 2차전에서 리오넬 메시의 결승골에 힘입어 사호타르(우크라이나)를 1-0으로 제압, 1차전(5-1 승)에 이어 1, 2차전 합계 6-1로 3년 연속 4강 진출에 성공했다. 바르셀로나는 4강에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 승자와 결승 진출 티켓을 놓고 싸운다.

4강 구도가 맨유-샬케04, 바르셀로나-레알 마드리드 대결로 사실상 굳어지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 엔탁가구전

**4월 30일까지 특별가 판매**  
식탁·좌탁·거실TV장·침대

이태리 직수입 → 도소매  
밀라노 5개사 한국총판

**신상품  
다량 전시**

화정동점과 본점상품은 겹치지 않습니다.

ITALY

**홍스페이스**

SPACE  
062-226-7567

| 화정동점 | 서구 화정동 307-1 화정역사거리(메디피아 신축병원 옆 400평) | 본 점 |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